

# 열둘 중의 하나: 가롯 유다

마26:14-16, 47-50, 27:3-10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은 후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유념합니다. 장례식에 가면 망자에 대한 평가를 들을 수 있는데, 애석하게도 인간은 타인의 죽음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삶과 죽음을 자신을 위한 교훈이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명계획서를 쓰고 좌우로 요동치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퇴장료 인생입니다. ▶ 성경에는 가롯 유다에 대한 평가가 많습니다.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도다” “멸망의 자식” “열둘 중의 하나.” 유다는 남부 게리옷 출신으로, 전직 세리인 마태를 제치고 사도단의 회계를 맡은 사람입니다. 유다독립전쟁의 영웅 ‘유다 마카비우스’를 본 따 붙여진 이름인 듯한데, 그만큼 재능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 “열둘 중의 하나”라는 표현은 의미심장합니다. 다빈치는 시실리성당의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가롯 유다 모델을 찾았는데 뜻밖에도 어릴 적에 예수님 모델을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예수와 가롯 유다, 천사와 악마, 천국과 지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항상 건전한 자기 의심, 자기 성찰을 수행해야 합니다. “주여 나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 ① 탐욕: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가롯 유다는 사도단의 재정을 맡아 보면서 공금을 유용했습니다. 좀도둑이 커서 큰 도둑이 된다고, 스승인 예수님을 은 삼십에 팔아넘겼습니다. 피 묻은 돈은 불안, 슬픔, 재앙을 몰고 왔습니다. ② 기대가 실망으로: 유다가 열심당원 출신이라면, 극렬민족주의자로서 로마민족을 몰아내려는 애국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추종할수록 신학적 견해와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실망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는 12명의 제자 중 유일하게 변화되지 못했고, 자기중심적 신앙을 지니고 있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③ 예수님을 자극: 유다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유대민족 해방을 위해서 군사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이 아니라, 미적거리리는 예수님을 자극하여 민족 해방을 위한 투사의 길로 가게 해서 메시아왕국을 건설하려 했을 것입니다.

<가롯 유다의 행위> ① 배신자의 바겐세일: 예루살렘에 입성한 뒤 베다니의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마리아와 유다는 헌신과 배신, 이상적인 제자상과 패역한 제자상, 예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느냐 이용의 대상으로 보느냐를 극명하게 대조시킵니다. 유다는 이 일 외에도 예수님을 은 삼십에 제사장들에게 팔았는데 그 비용은 소가 남녀종을 받아 죽였을 때 치루는 값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하찮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서는 부귀영화를 위해 영혼을 거는 것조차도 어리석다고 증언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이 값에 팔아넘기는 행위는 몰지각한 행위입니다. ② 배신자의 키스: “양의 털을 쓴 이리를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다가 그 자였습니다. 어둠 가운데 예수님을 정확히 지목하여 체포할 수 있게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키스입니다. 우정의 키스를 배신의 키스로 만들었습니다. 배신은 사랑과 신뢰를 받는 자가 그것을 이용해서 해를 끼치는 행위로, 단테의 <신곡>에서는 지옥의 가장 밑에 떨어져 루시퍼와 함께 고난 받는 중죄입니다. ③ 배신자의 최후: 예수님은 유다에게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발을 씻기실 때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하지만 끝내 회개의 부름을 거절했습니다. 유다라는 명예의 이름을 만고의 배신자의 이름, 수치스런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죄로 얻은 것은 싫어하게 되는데 은 삼십을 돌려줄 때 자신도 제사장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 열둘 중의 하나였던 가롯 유다, 우리도 매순간 스스로를 성찰하여 은혜와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